

음성가이드(입문코스)

1. 박물관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에 잘 오셨습니다.

오사카에는 일본의 고분을 대표하는 <후루이치고분군>의 <오우진천황릉고분>이나 <모즈고분군>의 <닌토쿠천황릉고분>등 5세기경의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대단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카즈아스카박물관 주변에도 <스이코천황릉고분>이나 <쇼토쿠태자묘> 등 7세기의 정치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들의 고분이나, 치카즈 아스카 후도키의 언덕에 있는 이치스카고분군 등 여러 고분이 조영되어 있습니다.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은 일본 유수의 고분이 집중되어 있는 오사카의 고분시대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고대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박물관입니다.

또한 고분시대였던 5세기에는 한반도 등지에서 많은 수의 도래인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왔습니다. 도래인에 의해 전해진 선진적인 기술이나 고도의 문화 등은 일본문화의 피와 살이 되어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치카즈 아스카라는 지역은 야마토의 아스카라는 지역과 같이 많은 도래인이 들어와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카즈 아스카 후도키의 언덕에 있는 이치스카고분군에는 도래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그것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은 동아시아와의 깊은 연관성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고대문화를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한 박물관입니다.

2. 제 1존, 고분시대·아스카시대와 국제교류

여기 제 1존에서는 쇼토쿠태자라고 불리는 우마야도 노미코등이 활약했던 고분시대 후기의 6세기부터 아스카시대의 7세기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분시대, 특히 5세기이후, 대왕들은 해외를 향해 눈을 돌려 한반도나 중국의 국가들과 교류를 갖게 됩니다. 금속가공이나 토기 등을 굽는 기술, 정치제도나 문자 등,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여, 한반도나 중국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말을 타는 풍습에 의해 마구가 등장하고, 도나 검에 문자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의 전시케이스에 보이는 것과 같이 치카즈 아스카 후도키의 언덕에 있는 이치스카고분군에는 한반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많은 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6세기말에서 7세기에 이르면 소가씨나 쇼토쿠태자 등이 한반도에서 전해진 불교를 받아들여 각지에 사원을 건설하게 됩니다. 또한 문자의 보급은 정보를 전하고 기록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여, 법률에 의거한 국가만들기를 가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쇼토쿠태자가 문했다고 생각되는 석실이나 쇼토쿠태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시텐노지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7세기가 되면 일본의 고분을 대표하는 전방후원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며, 고분의

규모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8세기가 되면 불교가 심화되면서 시신을 불에 태우는 화장법도 도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사회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도래인과 이치스카고분군

고분시대 중엽인 5세기 이후, 바다를 건너 한반도 등지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이들을 도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래인들은 당시의 우리 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마를 사용한 경질의 토기를 굽는 기술, 말을 타는 풍습이나 마구, 주거지 안의 화덕(노지), 금색으로 빛나는 금동제품 등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들이 점차 도입되게 됩니다.

여기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의 주변에는 6세기경에 만들어진 직경 10m에서 20m정도의 작은 원형분 260여기가 존재하고 있어, 이치스카고분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치스카고분군에는 도래인에 의해 도입되었던 금장식이 달린 귀걸이나 은비녀, 금동제 관이나 금동신발 등 당시의 유력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귀중한 물건들이 부장품으로 고분에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휴대용 가마·웅·시루라고 하는 조리 용구로 사용하는 도구의 형태를 한 미니어처 토기가 매우 많이 발견되어, 도래인의 특수한 풍습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치스카고분군의 도래인들이 남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4. 카나야마고분

박물관에서 8km정도 남쪽에 있는 카난초라는 곳에 있는 카나야마고분은 크고 작은 2기의 원분이 연결된 쌍원분을 한 일본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형태의 고분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한반도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의 왕묘에서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카나야마고분에 묻힌 인물이 신라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북쪽에 있는 작은 둥근 언덕에 만들어진 황혈석석실의 내부를 실제의 크기로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조사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남쪽에 있는 큰 둥근 언덕에도 같은 형식의 황혈석석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2개의 큰 돌로된 관은 집모양을 한 가형석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석관의 뒤편에 보이는 관짜임새는, 황혈석석실의 돌쌓음새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눈치 채셨습니까? 이러한 석관의 형태나 황혈석석실의 형태들을 볼 때, 지금부터 약 1400년 정도 전의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두에 만들어진 고분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견수사의 파견(중국 수나라에 파견한 사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직접 중국과의 국교를 개시하고,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 크게 전환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카나야마고분부터 시작되는 이 시기의 고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의 외교관계에 중요한 힌트를 전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5. 쇼토쿠태자의 무덤

이후에 쇼토쿠태자라고 불리는 우마야도 노미코가 묻혀져 있다고 생각되는 고분은,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의 북쪽, 약 2km쯤에 위치한 에이후쿠지라는 절의 경내에 있습니다. 현재 석실의 내부는 볼 수 없지만, 이 모형은 남겨진 기록에 의해 재현된 것입니다.

직경 약 54m의 원분으로, 중앙에는 표면을 평평하게 깎아 대단히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진 횡혈식석실이 있으며, 내부에는 3개의 관이 놓여져 있었던 듯 합니다. 돌로 된 받침대 위에 검은 칠을 바른 목관이 올려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복원 모형의 왼편, 석실 안쪽의 것이 쇼토쿠태자의 어머니, 오른편의 두개 중 앞쪽의 것이 부인, 안쪽의 조금 더 큰 것이 쇼토쿠태자 본인의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의 북편에는 이 쇼토쿠태자의 무덤을 시작으로 비타츠천황, 요우메이천황, 스이코천황, 코우토쿠천황 등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의 천황릉으로 상정되는 고분이 집중되어 있어, 시나가다니고분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중 최초의 비타츠천황릉 고분은 전방후원분이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대형의 방분 또는 원분인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6. 불교의 전래와 기와

6세기중반, 불교가 한반도에서 전해진 후 쇼토쿠태자가 있었던 6세기말에서 7세기 전반이 되면, 사원이 각지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원 건물에는 여태까지 우리 나라에 없었던 기와가 얹어졌고, 건물의 처마는 문양이 들어간 숫막새와 암막새로 장식되었습니다.

문양숫막새는 연꽃을 정면에서 바라본 문양으로, 연화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양은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데, 꽃잎 중앙에 아무 것도 없거나, 잎줄기의 능선이나 굴곡이 표현되어 있는 소판연화문이 제일 오래되었고, 그 뒤를 이어 꽃잎의 중앙에 작은 잎 1개를 배치한 단판연화문, 그 후 꽃잎의 중앙에 작은 잎 2개를 배치한 복판연화문의 순서로 대개 변화해 갑니다.

7세기에는 각지의 씨족들이 앞다투어 사울을 짓게 됩니다. 당시의 정치의 중심이었던 야마토에는 많은 수의 사원이 세워졌는데, 치카즈 아스카박물관이 있는 카와치에도 야마토에 뒤지지 않는 수의 사원들이 세워졌습니다.

8세기, 나라시대가 되면 불교의 힘을 이용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을 바꿔나가기 위하여 수도에는 토우다이이라는 절이, 국가 전체에는 고쿠분지라는 절이 세워지게 됩니다.

왼쪽편에 있는 모형은 쇼토쿠태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지금도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라는 절입니다.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대 사원의 가람배치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타입의 절입니다.

7. 문자의 보급

문자는 국가만들기나 문화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록하는 데에 쓰여진 것입니다. 문자는 종이에 쓰여졌었지만, 당시 종이는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목간이라고 불리는 얇은 나무 판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한번 쓰였던 표면을 깎아내면 몇번이고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토기나 기와에 문자가 쓰여지거나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쓰기 위한 도구, 즉 붓이나 벼루·묵 등도 유적 등에서 출토됩니다.

목간은 여러 문서, 기록, 짐표 등에 쓰여졌고, 글쓰기 연습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의 성적 등을 기록한 것들도 있어서, 편집된 기록물과는 달리, 당시의 생생한 정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역사 연구의 자료입니다.

8. 고분의 끝

3세기 후반부터 지어져 온 거대한 성토부를 가진 고분은, 8세기 나라시대에는 대부분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아마도 무덤으로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풍습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만들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의복의 제도도 그 중 하나로, 몸에 입는 옷이나 벨트 장식으로 한눈에 신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발굴 당시의 모습을 재현, 전시하고 있는 타이시초의 토기야마 고묘는 나라시대의 무덤으로, 작은 돌들을 쌓아 만든 방에 놓여진 목관은 목탄으로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목관 안에서 발견된, 은으로 만들어진 벨트 장식은 이 무덤에 묻힌 인물이 대단히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불교와 함께 전래된 화장이라는 장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서력 700년에 도우쇼우라는 스님이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후 천황이나 귀족들 사이에서도 화장이 행해져, 서서히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토기야마 고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무덤도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9. 제 2존, 고분이 만들어진 시대

여기 제 2존에서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만들어졌던 3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졌던 고분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30만기에서 40만기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미코가 사망했던 때부터 쇼토쿠태자가 활약했던 때까지, 대략 300년 이상의 긴 시기에 걸친 고분과 그 유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 존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분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래된 것부터 순번에 따라 전기→중기→후기로 나아가면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시기에서 볼만한 것들로는, 고분시대 전기는 삼각연 신수경부터 시작되는 청동거울 등의 부장품, 고분시대 중기는 갑옷이나 무기 등 여러가지 철제품, 고분시대 후기는 저승의 세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황혈식석실분과 금색으로 찬란히 빛나는 부장품들입니다. 그 외에도 고분에 열을 지어 세워져 있던 여러 모양을 한 하니와와 사망한 사람을 넣는 돌로 만든 관 등이 있습니다.

고분시대라고 하면, 무덤이었던 고분에만 눈이 가게 되지만, 스에키라고 하는 새로운 토기의 제작기술이나 여러 금속가공 기술 등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 이 점에도 주목해 주세요.

10. 고분시대의 시작

고분시대 중에 히미코가 사망한 시기부터 후루이치고분군이나 모즈고분군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를 고분시대 전기라고 부릅니다. 대략 3세기 후반부터 4세기에 해당됩니다. 전기의 고분에서는 삼각연 신수경을 비롯해 많은 수의 거울과 녹색의 돌로 만들어진 팔찌형 석제품 등이 출토됩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 신을 위한 축제나 주술을 행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왕이나 호족들은 주술자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철제의 갑옷이나 투구가 많이 출토되고 당시의 대왕이나 호족이 무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추정되고 있는 5세기대의 고분시대 중기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1. 시킨잔고분

시킨잔고분은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의 구릉 위에 만들어진 고분시대 전기 중엽의 전방후원분입니다. 분구의 길이는 100m로, 후원부에는 나무의 중앙을 둥글게 파낸 형태를 한 목관을 안치한 길고 큰 수혈식석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장품으로는 거울과 갑옷·무기·농공구·팔찌형 석제품 등이 있습니다.

삼각연 신수경은 테두리의 단면이 삼각형을 하고 있는 점, 중국의 신선사상에 의거해 천신과 천신을 지키는 짐승의 문양이 그려져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히미코가 중국 위나라의 황제로부터 하사받았던 100매의 동경이 삼각연 신수경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유달리 큰 거울은 곡옥문대 신수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직경이 약 36cm나 하는 것도 있으며 고분시대에서는 최대급의 거울입니다.

팔찌형 석제품은 고분시대 전기 후반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원래는 야요이시대에 유행했던 아마미 오오시마 이남의 난카이산 조개팔찌가 변화한 것입니다. 이 고분에서는 그 원형이 되었던 고히우라의 조개팔찌도 출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갑옷은 일본열도에 있어서 초현기의 철제갑옷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철검, 철도, 철촉 등의 무기류나 철부, 철톱, 철로된 낫 등의 농기구류, 철로된 팽이 등의 농기구 등 많은 수의 철제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시킨잔고분은 키키지방의 고분시대 전기의 모습을 대표하는 고분 중의 하나입니다.

12. 고분에 열을 지워 세워졌던 하니와

하니와는 점토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하니와는 3세기 후반부터 6세기, 즉 히미코가 사망했던 때부터 쇼토쿠태자가 활약하기 직전 즈음까지의 시기에 만들어 집니다. 하니와를 크게

나누면, 통의 모습을 한 원통형 하니와와, 사람이나 말, 집모습을 한 형상 하니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원통형 하니와로 고분의 평탄한 부분에 열을 지워 세워져 있습니다. 원통형 하니와는 야요이시대에 토기(호)를 올리는 기대(대)로 사용되던 토기가 대형화하여 무덤에 열을 지워 세웠던 것이 그 유래입니다. 따라서 하니와 중에는 원통형 하니와와 호형 하니와가 가장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 후 집모양을 한 하니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이후 화살을 집어넣는 화살통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의 뒤에서 받쳐주던 비단 우산, 방패, 갑옷, 투구 등의 모양을 한 하니와가 나타납니다. 인물 하니와나 동물 하니와의 대부분은 고분시대 중기, 즉 후루이치고분군·모즈고분군이 만들어진 5세기에 나타납니다. 인물 하니와에는 무녀나 무인, 동물 하니와에는 말, 멧돼지, 개 등이 있습니다.

인물 하니와가 무덤에 세워진 의미를 두고, 왕위를 인계하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 죽은 이가 살아 있을 당시의 활약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 죽은 이를 애도하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 저승의 이상향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타당한 것 인지는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설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13. 왜의 다섯왕이 활약했던 고분시대 중기

후루이치고분군·모즈고분군이 만들어졌던 시기, 다시 말해 5세기 전후를 고분시대 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오우진천황이나 닌토쿠천황, 유우랴쿠천황 등의 대왕들이 활약하던 시대로, 그들 중에는 중국의 역사서에 등장했던 왕도 있습니다.

고분시대 중기는 닌토쿠릉 고분이나 오우진릉 고분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고분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중기의 고분에서는 철제의 갑옷과 투구 등이 대량으로 출토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당시의 대왕이나 호족들은 무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고분시대 전기의 대왕이나 호족들이 주술사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중기는 기술혁신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고분에 부장되었던 대량의 철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단야기술이나 회색을 띠는 경질의 토기, 즉 스에키를 만드는 기술이 이 즈음에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들은 한반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 즉 도래인이 들고 온 것들입니다.

이렇듯 고분시대 중기는 거대고분과 기술혁신의 시대로, 한반도나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시기였습니다.

14. 대량으로 부장되었던 철제품

고분시대 중기, 즉 5세기 전후의 고분에서는 대량의 철제품이 출토됩니다. 그 종류도 풍부하여 철제의 갑옷과 투구·검·칼·창 등의 무기, 팽이·가래·낚 등의 농구, 도끼·끌·대패 등의 공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반도에서 들여온 철정이라고 불리우는 철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철정은 양끝

단이 조금 더 넓은 장방형의 철판입니다. 당시의 일본에서는 철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를 한반도에서 입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후지이데라시 노나카고분·아리야마고분·니시하카야마고분, 나라시의 야마토 6호분에서는 특히 많은 수의 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그 수는 노나카고분에서 갑옷과 투구 11세트, 아리야마고분에서는 화살촉이 약 1500점, 낫이 약 200점, 니시하카야마고분에서는 끌이 약 294점 이상, 도끼 139점 이상에 달하며, 거기에 야마토 6호분에서는 872매의 철정이 출토되었습니다.

고분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었지만, 아직은 귀중품이었습니다. 철기를 대량으로 매납하는 것은 대왕이나 호족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왕을 중심으로 한 야마토 정권이 철소재의 확보와 제품의 생산, 유통을 손에 쥐고 있었음을 추측 가능케 합니다.

15. 5세기의 기술혁신

많은 수의 도래인이 들어옴으로 인해, 5세기에는 다양한 기술이나 물건들이 만들어 집니다. 그 중 하나가 스에키의 생산입니다. 5세기 초두를 전후해 산사면에 만들어진 가마를 이용하여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일본에서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구워진 토기는 회색을 띠고 대단히 단단한 스에키라고 불리는 토기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토고나메, 비젠 등의 토기들로 이어져 나갑니다.

고분시대 최대의 스에키 생산지는 오사카부 사카이시나 이즈미시 부근에 있는 스에무라 가마유적군입니다. 5세기부터 10세기경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500기 이상의 가마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대량의 철제무기, 무구, 농공구 등의 생산과 발전입니다. 5세기 초에 도래인 공인이 가져온 것으로, 여태까지의 소규모로 흩어져 이루어 졌던 공방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단야공방이 만들어집니다. 오사카부의 카타노시 모리유적이나 카시하라시 타나베유적, 오오가타유적 등이 5세기경 돌연 나타나는 대규모의 철기생산공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생산가공기술의 도입에 따라 못박기(보우도매)기법을 사용한 대량의 갑옷과 투구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신형 농공구의 생산이 개시됩니다. 여태까지와는 확연하게 생산규모가 달라져, 철기생산의 큰 전환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6. 석관

야요이시대 이후, 시신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 왔던 나무 관과 함께, 고분시대에는 목관의 형태를 흉내내어 돌로 만든 석관이 사용되게 됩니다. 석관은 부패하기 쉬운 목관과 비교하면 보다 오래 시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4세기의 할죽형목관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옆으로 길게 잘라 맞춘 듯한 목관을 흉내낸 석관이 나타납니다. 매우 적은 수만이 발견되지만, 카가와현의 와시노야마 돌이나 화산석이라고 불리는 응회암제의 것들을 전형적인 예로 하여 킨키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배의 형태를 띤 목관을 흉내 낸 주형석관도 각지의 질 좋은 석재산지 부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4세기 후반에는 키키지방에서 장대형석관이 나타납니다. 대왕묘급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왕의 관>이라고 불립니다. 관이 만들어진 석재는 대부분이 효고현 카코천유역의 타즈야마석이라고 불리는 응회암입니다. 여기서 장대형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류 등을 넣는 장대라고 하는 껍질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가형석관(집모양석관)은 큐슈에서 운반된 아소산의 용결응회암으로 만들어진 배형석관을 기본으로 키키지방에서 성립되었습니다. 가형석관은 몸체와 뚜껑이 전부 같은 돌을 깎아 내 만든 것과, 복수의 석재를 짜맞춘 것이 있으며 6세기 이후 각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아소산의 용결응회암의 석관 중 일부가 키키지방까지 운반되어 온 것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러 먼 지역의 석재를 사용한 것은, 무덤에 묻힌 인물과 그 지역간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7. 눈부시게 화려한 유물들에 그려진 고분시대 후기

고분시대 후기는 6세기에 해당하는데, 이치스카고분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쇼토쿠 태자가 활약하기 직전까지의 100년 정도가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고분시대 후기에는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식석실이, 대왕묘를 시작으로 직경 10m정도의 작은 고분에서도 매장시설로 널리 채용되어 갑니다. 또한 고분시대를 상징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도 그 수가 줄어들고, 규모도 작아지게 됩니다.

고분의 부장품은 금도금을 한 대도나 마구, 금색의 관모와 금동신발 등 눈부시게 화려한 유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고분시대 중기에 보여지던 갑옷 등의 철제무구는 적어지고, 금도금을 한 금색으로 빛나는 화려한 유물들이나 장신구가 부장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금색으로 빛나던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한정된 사람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배자나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금동제의 관, 길게 드리워진 장식이 달린 귀걸이, 금동신발, 손잡이에 용머리 장식이 날린 대도 등,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눈부시도록 화려한 물건들로 몸을 장식하였습니다.

18. 횡혈식석실

고분시대 후반이 되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횡혈식석실이라는 매장시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수혈식석실과 같이 한사람만이 매장되는 시설이 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매장 후 밀폐하기 때문에, 한번 매장을 실시하게 되면 다시 무덤을 여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편 횡혈식석실은 죽은 이를 넣어두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방과, 현실과 이어지는 연도라고 부르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석실의 입구를 돌로 막고, 그 돌을 다시 들어 내면 몇번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무덤에 여러 명의 시신을 반복해서 매장하는 추가장이 가능한 형식입니다.

밭 밑에 있는 이치스카 O-5호분에는 석관의 옆으로 나무관자를 고정하던 못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목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추가장을 하면서 석실을 드나들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전에 매장한 사람의 유골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사기나 일본서기에는 이자나기노 미코토가, 죽은 이자나미노 미코토를 찾아 황천국을 방문한다는 신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황혈식석실에서 행해진 여러 다양한 의례를 반영한 설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 닌토쿠릉 고분모형

다이센 고분, 다이센릉 고분이라고도 불리는 닌토쿠릉 고분은 사카이시에 있는 5세기의 전방후원분입니다. 분구의 길이는 486m, 후원부의 높이는 35m로서 세계 최대규모의 분묘입니다. 닌토쿠릉 고분을 축조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지금의 건설회사의 계산에 의하면 15년 8개월, 조영을 위해 투입된 사람은 총 680만 7천명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형은 그 거대한 고분을 150분의 1 크기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실제로 고분주변에 위치하는 배총이라고 불리는 고분 외에 호족들의 집, 고분의 조영에 관계되는 시설들과 고분 조영 당시의 모습들이 일본열도 각지에서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사였기 때문에 고분을 축조하던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숙박했었을 것입니다. 하니와를 만들던 공방이나 철기 공방 등 고분만들기를 지원하던 공방들이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모형에는 이러한 공인들의 마을이나 공방 등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배총이라는 것은, 대형 고분의 주변에 계획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판단되는 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형고분 피장자와 관련이 있는 신하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고분의 부장품만을 묻어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주위에 있는 배총에, 분구의 조성에서부터 층석의 부설·하니와의 배열 등 고분의 축조과정, 매장과 함께 이루어진 의식이나 그 과정을 상상하여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20. 호족의 연합에 의해 정치를 해나가던 고분시대

고분시대는 일본에 있어서 국가성립의 기초를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야요이시대에는 논에서의 경작이 시작되고, 이윽고 사람들을 모을 힘을 가진 인물 또는 그 일족, 즉 호족이 각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고분시대가 되면 나라현이나 오사카부의 호족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연합이 만들어 집니다. 나라현과 함께 당시의 중심지였던 오사카부에는 이러한 이유로 닌토쿠릉 고분이나 오우진릉 고분 등의 거대고분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분은 각지에서도 만들어져 오카야마현의 츠클리야마 고분의 경우, 분구의 길이가 360m나 하는 고분도 만들어 집니다. 이러한 고분의 전파(퍼짐)는

당시의 정치가 대왕과 각지의 호족들이 연합해 하나가던 것이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이 연합에 의한 정치를 그만두고, 중국에서 배운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목표로했던 이들이 아스카시대에 활약했던 스이코천황·쇼토쿠태자·소가 우마코 등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긴 전란의 시대를 지나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강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스이코천황 등은 수나라를 배우면서 일본의 국가만들기를 해나갔습니다. 이 움직임은 텐치천황이나 텐무천황에게도 이어져 일본에서의 첫 국가, 다시 말해 율령을 기본으로 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국가성립에는 중국이나 한반도의 선진적인 문화나 제도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고분시대, 특히 5세기 이후 금속가공이나 하니와를 만드는 기술, 승마의 풍습, 정치 제도나 문자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만들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가는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의 교류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21. 수라

수라는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썰매와 같은 운반도구입니다. 이 수라는 후지이데라시의 미즈즈카 고분의 도랑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장 약 8.8m이고, 무게는 3t이나 됩니다. 재질은 북가시나무로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던 한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또한 뒷편에 있는 조금 작은 수라는 같은 곳에서 출토된 것인데, 길이 약 2.8m의 두 갈래로 갈라진 한그루의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분을 만들 당시, 이 수라에 큰 돌이나 석관을 얹어 운반했던 것일까요? 수라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데, 수라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위에 얹어져 있던 것들을 로프로 묶기 위한 구멍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짐을 운반할 때에는 수라의 밑으로 둥근 나무를 넣어 굴림대처럼 하여, 끌기 쉽도록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렛대는 뒤에서 끌어넣어 수라의 방향을 조정할 도구입니다.

이 목제품의 보존처리는, 목제품의 수분을 모두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약품으로 치환하여, 원래의 형태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게 한 기술개발의 결과입니다. 이 수라는 14년이라는 세월을 들여 보존처리를 실시, 현재 이 장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